

[홋카이도 교육대학교 유학생에 의한 레포트 :

코세쯔엔에서의 즐거운 하루]



<코세쯔엔 입구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윤시원(한국), 보쿠카이교우(중국), 손카이교쿠(중국), 우몬제(타이완), 양곤웬(타이완), 안토첸(호주), 헨릭슨사이몬브로벨(노르웨이), 얀-에릭 사무엘슨(노르웨이)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2013 년 11 월 9 일에 다녀온 하코다테의 코세쯔엔(향설원), 유쿠라신사, 그리고 유노카와 족욕 체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화창했던 날씨 덕분에 저희들 모두 즐겁게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아침 10 시에 고료가쿠 버스정류장에서 14 번 버스를 타고 코세쯔엔(향설원)으로 향했습니다. 코세쯔엔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난 후, 오래된 신사인 유쿠라 신사를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온천으로 유명한 유노카와의 족욕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곳씩 자세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 코세쯔엔(향설원)의 단풍



<코세쯔엔의 단풍 풍경>

코세쯔엔(향설원)은 하코다테의 미하라시공원 안에 있는 정원입니다. 코세쯔엔(향설원)은 홋카이도에서는 유일하게 명승사적으로 지정된 정원으로, ‘향설원’이란 이름은 눈 속에 매화 향기가 나는 동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하코다테 지역에서 자산가로 유명했던 이와후네 가문의 사재였던 곳을 훗날 시민에게 개방하게 되면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우수한 일본식 정원의 예로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코세쯔엔(향설원)에 들어가서 먼저 눈을 사로잡는 것은 울긋불긋 예쁜 색으로 물들어 있는 단풍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하늘과 단풍의 경치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다 함께~>

잔디밭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니 더욱 즐거웠고 맛도 두 배로 맛있었습니다.

저희 외에도 단풍구경을 나온 가족들, 학교에서 소풍을 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세쯔엔은 예쁜 경치와 평온한 분위기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하코다테 시민들의 안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2. 코세쓰엔의 별장



<코세쓰엔의 별장>

코세쓰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園亭으로 이와후네 가문이 별장으로 쓰던 건물로 일본 전통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의 경치와 어우러져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장 옆의 정원>

별장의 오른쪽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언덕과 맑은 연못이 있었는데요 연못은 물이 맑고 깨끗해 물고기들도 있었고 물에 단풍 풍경과 맑은 하늘이 비쳐서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건물 안도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도 전통적인 일본식 구조였습니다.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일본의 다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쯤 이런 다실에서 조용하고 평안히 녹차를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별장내부의 다실 >

3. 유쿠라 신사

코세쓰엔을 전부 여유롭게 둘러본 후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유쿠라신사로 향했습니다. 신사의 입구 인 토리이에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 신사 앞 토리이에서 >

유쿠라 신사는 유노카와 온천의 발원지로 신사 내에는 그와 관련한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쿠라신사와 유노카와 온천은 1453년(쿄토쿠 2년)경 한 나무꾼이 집에 가는 길에 언덕의 물이 고여있는 폭포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나무꾼은 관절통을 앓고 있었는데, 발견한 그 온천에서 요양을 해 관절통이 싹 낫았다고 합니다. 그 후 관절통이 낫은 것을 감사히 여겨, 그곳에 약사 여래를 새기는 작은 사당을 짓고 약사여래를 안치한 것이 유쿠라 신사와 유노카와 온천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 테미즈야 >

토리이를 지나 신사에 들어가면 앞쪽에 ‘테미즈야’ 라는 손을 씻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신사에서 참배하는 곳을 방문하기 전에 손과 입을 행군다고 합니다. 테미즈야에서 손을 씻는 방법은 물 바가지를 이용해서 왼손, 오른손 순서로 손을 닦은 후 왼손에 물을 받아서 입을 행군니다.



유쿠라 신사에는 다른 신사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원을 비는 망치였습니다

‘개운’ 이라고 쓰여 있는 망치는 소원을 빌면서 방망이를 흔들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조금 작은 ‘건강 장수’ 라고 쓰여있는 방망이는 아픈 곳이 좋아 지길 바라면서 아픈 곳에 방망이를 문지르면 아픈 곳이 낫는다고 합니다.



4 . 유노카와 족욕

저희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하코다테시 전차 ‘유노카와 온천’역 근처의 족욕탕이었습니다. 유노카와 온천은 하코다테시 유노카와에 있는 온천 town으로 홋카이도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노카와 온천의 시작은 1653 년으로, 마쓰마에 9 대 영주가 이 곳에서 온천욕을 한 이후 병을 고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유노카와 족욕탕에서 >

저희는 안타깝게도 온천욕을 하진 못했지만, 하코다테시 전차 유노카와 역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족욕탕에서 다 함께 족욕을 했습니다.

유노카와 족욕탕은 2007 년 12 월에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요금은 무료이며 연중무휴로 아침 9 시부터 밤 9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족욕을 즐길 수 있어 하코다테 시민들과 하코다테의 관광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수건을 준비하지 않아서 족욕을 할 지 말지 고민을 했지만, 막상 족욕탕에 발을 넣어보니 온도도 알 맞게 따뜻해서 추웠던 몸도 녹고 발의 피로도 풀려서 최고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꼭 수건을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

저희들은 이번 기회로 하코다테의 코세쓰엔, 유쿠라신사, 유노카와 온천을 다녀오면서,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함께 일본의 자연과 일본의 문화, 역사 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코다테에 오실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 꼭 한번 코세쓰엔의 풍경과 유쿠라신사 건강 기원, 유노카와에서의 족욕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특별하고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코다테로 오세요!!

